

# 朝鮮前期 社會構造에 관한 考察

— 15世紀 身分構造 分析을 中心으로 —

강 상 택

## A Study on the Aspects of Social Structure in Early Yi Dynasty

*Kang Sang-Tack*

〈 目 次 〉

- I. 序 言
- II. 身分形態에 의한 社會構造分析의 檢討
- III. 後期知識人의 身分觀에 의한 社會構造分析의 試圖
- IV. 土地經營의 側面에서의 農民의 身分의 性格과 社會構造
- V. 結 言

### Abstract

The social structure in Yi Dynasty has been analyzed in various ways in terms of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systems. Such structure of society is considered to be formed by the common people who constitute the society. Accordingly, as their social activities are regulated by their corresponding social status, a study on the social position has priority over that of any other historical system.

Studies on social stratification in early Yi Dynasty are made on a full scale from 1940's to 1950's and are individualized and specialized from 1960's to 1970's.

A series of articles published by Professor Han Yang-Woo deal with the structure of the society from the viewpoint of the two classes system (the power elite, the common people) rather than from the traditional view of the four classes (the nobles, farmers, artisans, and merchants).

In a traditional society, a change of the social structure can be measured b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ower elite and the common people who are engaged in the production activities. This is very crucial to the study of the social structure.

This study attempts to reconsider the controversial yangchun system on the base of the previously studied yangban's fundamental system. Thus, considering problems raised in yangchun system in all their aspects, I made an attempt to analyze the social structure in the following two ways.

First, the two classes of the structure of society, yangchun system, were considered from the intellectuals' viewpoint in early Yi Dynasty, not from the government-own materials. The social structure in early Yi Dynasty is considered to be formed through the class division of the government officials to the dominating yangban system. It seems to be certain that in early Yi Dynasty the intellectuals' view of the social status may form the outlook of the status from the character of the four classes to the nucleus of the government officials.

Second, an investigation into the structure of the society was made in terms of land system. Yangban, a special social status class, can be seen to be formed because kubjun(給田) in kwajunbub(科田法) can be established on the base of the boundary of the officials' privileged treatment and the power elite's reciprocally guaranteed relationship.

What was considered in this study shows that Professor Han's argument that yangban's privileged social status over the middle class or the common people may be wrong.

Accordingly, the social status in early Yi Dynasty was found to be stratified not by the noble and the mean of the family but by the base of the ownership of land. This reveals that the explanation of the social status in early Yi Dynasty in terms of the two classes system can surely raise some questions.

Furthermore, it is argued that the farmers had the same social status as the

government officials on the ground of the former's favorable treatment according to the law at the time of foundation of Yi Dynasty. This argument, however, seems not to be helpful to the understanding of the social structure at this time.

In fact, this work has been already established and, thus, this study attempted not to be involved in the objection of the established theory but to analyze the social stratification on the base of Yangchun System in order to understand the social structure in early Yi Dynasty.

## I. 序 言

朝鮮時代 社會構造의 分析은 政治 社會 經濟의 變移에 따라 追論되어져 왔다. 이와 같은 時代的 變移에 따른 社會構造의 分析은 社會를 構成하고 있는 民에 의해 定立되어 진다.

따라서 民에 부여된 身分은 그 社會의 모든 民의 活動을 規定하는 것이므로<sup>1)</sup> 身分制에 관한 研究는 政治 經濟에 관한 研究에 우선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朝鮮初期 身分制에 관한 研究는<sup>2)</sup> 1940 ~ 50年代에 본격화 되었다.

金錫亨氏에 의하면 封建社會階級은 세습身分으로써 法制的 身分을 兩班·良人·奴婢로 보고 그들을 土地所有 關係에 따라 여러 계층으로 분류하고 있었다.<sup>3)</sup>

1960 ~ 1970年代 들어 身分史의 研究는 個別化 專門化하고 있었다.

특히 金泳謨 教授는<sup>4)</sup> 榜目を 이용하여 支配層의 身分變動을 통계적으로 研究하여 兩班 세습성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朝鮮前期 社會는 四分法的(兩班·中人·常人·賤人) 身分構造에 의한 社會構造임이 通念으로 정립되어 갔다.

그 以後 이러한 通念에 대해 異論을 제기하는 研究가 활발하여져 身分制度에 관한 研究를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하게 되었다. 이것이 곧 韓永遇 教授에 의해서 發表된 일련의 論文

- 
- 1) 金錫亨: 〈李朝初期 國役編成의 基抵〉《震檀學報》14. 1934  
 2) ① 李相佰: 〈庶孽差待의 연원에 對한 研究〉《震檀學報》15. 1934  
     〈賤者隨母考〉                      〈 " 〉25, 26, 27, 號, 1964  
     ② 周藤吉之: 〈鮮初 における奴婢の辨整と推刷〉《靑丘學叢》22. 1935)  
     ③ 金錫亨: 〈朝鮮封建時代 農民의階級構成〉《學習院 東洋文化研究所 刊行 1960  
 3) 金錫亨: 〈李朝初期 國役編成의 基抵〉《上揭書》  
 4) 金泳謨: 〈李氏王朝時代의 支配層(Elite)의 形成과 移動에 關한 研究〉《中央大論文集》11집,  
 12집. 1966. 67

들<sup>5)</sup>이 前期의 身分制度를 二分法的(良賤制) 측면에서 考察하려는 것이었다.

이로서 지금까지 通念化되고 있었던 四分法과 二分法的 身分制를 中心으로한 學說이 兩立되어 前期社會構造가 分析되고 있었다.

朝鮮時代 社會構造의 分析에 先行되어야할 하나의 과제인 身分構造의 分析은 傳統社會의 變化가 身分制度와 어떤 關係에 놓여 있느냐에서 파악 되어져야하기 때문에 支配階層과 被支配階層과의 상관 關係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傳統社會에서의 支配階級은 生産活動에 從事하고 있는 被支配階級과 政治的 經濟的으로 어떤 상관 關係가 이루어 지고 있는가에 따라 社會構造의 變化가 측정되어 질수 있기 때문이다.

一般的으로 李朝封建社會에 있어서 支配層의 役割은 官僚制 機能과 연결하여 설명되기 때문에 官僚制와 官職은 곧 支配階層과 수평적 關係에서 이해되어지고 있다.

그것은 支配層의 범주인 兩班의 性格 규명에 대해 다각적인 方法의 研究가 이루어진 理由가 되며 支配層 즉 官人은 社會的 機能뿐 아니라 知識과 責任 및 出生(血緣)과 財産 그리고 資質과 같은 評價基準의 相互作用에 의해 社會的 地位와 機能의 差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兩班의 形成時期와 兩班의 性格규명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理由에서 이미 試論되어진 身分制의 構造 즉, 二分法과 四分法의 形態를 검토하여 兩班의 實체를 규명하고 兩班身分의 變移과정에서 나타나는 鄉民의 實태를 파악하여 前期社會 構造를 考察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환언한다면, 지금까지 研究되어진 兩班身分의 本質的構造를 바탕으로 朝鮮前期社會 구조를 파악하려 한다.

- 즉 ① 朝鮮前期 身分구조의 性格을 理解하여 朝鮮前期 社會의 구조적 형태가 어떻게 위치 하는가를 파악하고
- ② 諸學說의 反論과 對立的 見解를 檢討하여
- ③ 諸學者들이 인용한 官選資料에 의하지 아니하고 後期知識인이 가진 身分觀에 의하여 朝鮮前期 社會구조를 이해하고자 한다.
- ④ 또한 身分構造의 실질적 양상을 土地경영의 측면에서 考察하여 前期社會構造 分析과 相關하려고 시도하였다.

즉, 科田法의 分給과 相關한 國家와 士族과의 關係에서 나타나는 兩班의 개념을 파악하여

5) 韓永愚: ① 〈朝鮮初期의 上級胥吏成案官〉《東亞文化》14. 1971

② 〈柳壽垣의 身分改革思想〉 〈 " 〉 1972

③ 〈朝鮮前期 性理學派의 社會經濟思想〉《韓國思想史大系Ⅱ.》1976

④ 〈朝鮮前期의 社會階層과 社會移動에 關한 試論〉《東洋學 8, 朝鮮前期 社會經濟研究 乙酉文化社.》1983

身分構造가 가지는 사회적 형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시도는 단순히 朝鮮王朝前期의 社會構造를 이해 할려는 작업에 불과 하며 諸學說의 對立的 見解에 관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좀더 신중히 研究되어야할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制度史의 측면에서 論議되어진 身分構造를 經濟史 및 社會諸部分에 걸쳐 다각적인 研究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II. 身分形態에 의한 社會構造分析의 檢討

朝鮮朝 社會階層構造에 관하여는 一般的으로 定說化 되어져 왔던 兩班·平民·賤民의 3階層을 주축으로 하여 社會구조가 형성되어져 있었다.

그리고 兩班과 나머지 두 階層사이에는 支配와 被支配의 관계를 形成한 社會구조 였다는 것이 支配的 見解였다.

이와 같은 理論은 李相佰<sup>6)</sup> 金錫亨<sup>7)</sup> 金泳謨<sup>8)</sup> 李成茂<sup>9)</sup> 韓祐勗<sup>10)</sup> 諸氏들에 의해 研究의 시각은 달라도 一般的으로 朝鮮前期 社會階層構造를 이해하는데 있어 兩班特權 身分說에 별다른 異議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1977年 韓永愚 教授에 의해 「朝鮮前期의 社會階層과 社會移動에 관한 試論」(朝鮮前期 社會經濟研究: 乙酉文化社刊)을 發表함으로써 身分구조에 의한 社會계층 研究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에 앞서 宋俊浩 教授도<sup>11)</sup> 科擧와 兩班·良人의 관계를 詳論하여 良人は 法制的으로 과거 응시에 하등의 身分의 제약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農民과 兩班이 점유한 社會구조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論持는 崔永浩<sup>12)</sup> 李成茂<sup>13)</sup> 諸教授에 의해 재확인 되었다.

6) 李相佰: <韓國史 近世前期> <震檀學會> 1964)

7) 金錫亨: <上揭書>

8) 金泳謨: "

9) 李成茂: <朝鮮初期 兩班研究> <一潮閣> 1967)

10) 韓祐勗: <韓國社會階層의 近代化 過程> <思想界> 1960. 10월號)

11) 宋俊浩: <朝鮮時代의 科擧와 兩班 및 良人> <歷史學報> 69 1976.

12) 崔永浩: <Commoners in early Yi dynasty civill examinations> <韓永愚: 朝鮮前期社會經濟研究, 中內容의 일부정리>

13) 李成茂: <上揭書>

특히 李成茂 教授는 朝鮮時代 階層構造를 兩班·平民·賤民으로 三大分 하여 研究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었던 점이 주목되어진다. 韓教授는 1974年 wagner 教授에 의해서 발표된 「Social stratification in 17th Century Korea」라는 論文을 인용하면서 15C 社會階級구조가 유동적이고 개방적이었으나 16C~17C에 이르면 경직되어 王朝末까지도 基本的 身分變化가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朝鮮王朝의 身分構造는 通時代的으로 兩班·平民·奴婢로 三分하는 立場에서 전개된 것으로 朝鮮初期의 개방성이라는 것도 양반 이외의 平民의 참여가 있었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一般的 問題와 경향을 달리하여 朝鮮前期와 後期の 兩班 또한 良人을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朝鮮初期 社會階層을 크게 良賤制로 理解하려는 시도로부터 朝鮮前期 社會構造를 分析하려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劉承源<sup>14)</sup> 교수에 의해서도 제시되고 있는데 그것은 朝鮮初期의 身分制가 法制上으로는 良人과 奴婢로 나누는 二者擇一의이며 다만 良人은 單一한 階層이 아니라 복잡한 다방면의 階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상과 같이 研究된 問題의 핵심은 지금까지 朝鮮時代의 通念的 身分構造인 兩班·中人·常民·賤民의 四分法的 해석에 대해 朝鮮·前·後期の 身分構造가 유동적이어서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는 二分法的 身分制에 의한 社會구조 분석이 그것이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연구된 問題에 접근하기 위하여 몇개의 試案을 놓고 分析할 필요가 있다. 試案이된 論著는 확대하지 않고 3部分으로 축소하였다.

- 1) 朝鮮初期의 社會階層과 社會移動에 관한 試論<sup>15)</sup>
- 2) 朝鮮兩班考……(朝鮮朝 社會의 階級 構造에 관한 試論)<sup>16)</sup>
- 3) 朝鮮初期 兩班研究<sup>17)</sup>

위 1)은 良賤 二階級論에 의해 朝鮮前期 社會구조를 分析하려했던 試論으로서 지금까지의 通念的 社會계층 구조에 問題性을 提示하였으며 2)는 良賤 2계급론에 反論을 提起하여 通念的 身分說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었다.

14) 劉承原: 〈朝鮮初期의 身良役賤階層〉《韓國史論》1973

15) 韓永愚: 〈1977年 東洋學 8號에 發表하였고, 1983年 乙酉文化社刊인 朝鮮前期 社會經濟研究에 수록하였다.〉

16) 宋俊浩: 〈朝鮮時代의 科擧와 兩班 및 良人〉《歷史學報》69.1976에서 兩班과 良人의 關係를 詳論하고 1983年 韓國精神文化 研究院에서 發刊된 韓國史學 4號에서 韓教授의 理論이 不當함을 지적하면서 反論을 제기하고 있다.

17) 李成茂: ① 〈15世記 兩班論〉《創作과 批評》28. 1973. 여름호

② 〈朝鮮前期 身分制度〉《東亞文化》第13輯 7. 1976.

③ 〈兩班官僚政治의 構造의 矛盾〉《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12. 1977

등의 論文을 정리해서 1981年 一潮閣을 통하여 兩班研究를 총정리 간행 하였다.

위 두 論文은 身分制의 二分法的 해석과 四分法的 해석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分析된다.

3)은 朝鮮初期 兩班의 形成을 高麗時代와 연결하여 광범위한 부분에 걸쳐 兩班의 特權의 요소를 확인하고 良賤身分의 性格에서 朝鮮初期 이미 四分法的 身分의 分化에 의해 社會構造가 形成되었다는 理論을 定立함으로써 通念的 四分法에 의한 社會구조를 이해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이 論著들의 性格을 파악하기 위해 각 論文이 가지는 ① 朝鮮時代 身分制에 관한 시각 ② 理論的 根據 ③ 研究의 方向 ④ 研究의 成果가 무엇인가를 살펴 身分構造에 의한 朝鮮前期 社會構造를 이해하려고 한다.

諸理論의 比較

	朝鮮時代 身分制에 관한 시각	理論的 根據	研究의 方向	研究의 成果
通 論	朝鮮前期의 社會階層(social stratification)은 두개의階級과 4개의身分으로 나누고 4개의身分이 세습적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이해하는 경향.			
韓永愚 教授 朝鮮初期의 社會계급과 社會變動에 관한 試論	① 朝鮮初期에는 兩班·中人·常漢(良人)이 서로 대칭되는 관계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① 太祖實錄 卷 13. 太祖 7년 2월 庚辰條. 「兩班常漢之相關……弧弱兩班·見浚於強常漢」 ② 成宗實錄 卷 189. 17년 3월 戊辰條…… 慮思慎의 議 「我國人物非良則賤只有二途耳」	① 朝鮮前期는 社會特權層으로서의 兩班은 形成되지 않았고 또한 兩班·中人·常漢(良人)이 극단적으로 뚜렷하게 分化되어 있지 않았으며 良人和 奴婢는 國民을 兩分하는 基本的인 身分規範인 까닭에 「我國의	① 1971 : 成衆官 研究에서 中人層의 하나로 간주되어 온 胥吏가 150에 있어서 中人の 세습직이 아니라 시험에 의해서 선발되는 流品官으로 진출했던 士類였다는 것을 다양한 實例를 통해서 증명하였고

	朝鮮時代 身分制에 관한시각	理論的 根據	研究의 方向	研究의 成果
<p>韓永愚 教授</p> <p>朝鮮初期의 社會계 급과 社會 變動에 관한 試論</p>	<p>② 朝鮮初期의 良人은 奴婢와 뚜렷이 대칭되었고 良人과 奴婢와의 區別은 天과地 또는君과 臣의 關係로 인식 되었다.</p> <p>③ 朝鮮初期의 兩班이 고려時代의 門閥貴族이나 鄉吏·百姓層을 합친 것 보다 넓은 社會계 층을 형성할 수 없었다는 것.</p> <p>④ 階層研究에 있어 方法論上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階層成立의 변수를 設定하는 문제이다.</p>	<p>① 李珣의 「社倉契約束」 栗谷全書·雜著·下人과 士族의 對稱개념</p> <p>② 太宗實錄 卷 16 太宗 8년 7월 乙丑條. 「戶口之法久廢 以致良賤 相混流亡 不息…… 良賤分揀限三年成籍」</p> <p>① 太宗實錄 卷 27 太宗 14년 4월 乙巳條. 「近年以來戶口之法不明 差役不均·良賤混渝 其弊不小」</p> <p>① 柳壽垣 「迂書」 「論門閥之弊 國初猶有唯才是用之意 頃輔多出孤寒 至丁軔 近則偏重之勢」</p>	<p>人物은 良人이 아니면 賤人 두개의 길이라는」二分法的 측면에서 身分制度를 研究</p> <p>② 血統의 貴賤에 의해서 朝鮮前期의 全體國民은 良人과 奴婢로 크게 兩分되며 階層成立의 원칙 즉, 職業의 貴賤이란 원칙이 身分的으로 分化된다고 지적하여 職業의 貴賤에 의한 良人間의 身分 分化는 어디까지나 本人의  희망과 能力에 따라 流動性을 가진 것이므로 成就的(achievable)인 것이라고 지적했다.</p>	<p>② 柳壽垣의 身分改革思想(1972)</p> <p>③ 鄭道傳思想의 研究(1973)</p> <p>④ 朝鮮前期 性理學派의 社會經濟思想(1971)등을 묶어 朝鮮初期와 後期의 兩班개념이 다르다는 見解와 朝鮮初期의 兩班은 血緣개념으로서 兩班의 對稱은 百姓이며 兩班과 百姓이 모두 良人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았다.</p>
<p>宋俊浩 教授</p> <p>朝鮮朝 社會계 급에 관한 試論</p>	<p>① 兩班·士族 그 밖의 명칭으로 불리운 上流特權階層은 우리나라 歷史上 어느 時代에나 있었다는 것</p> <p>② 한 家門으로서의 士族이란 官職者</p>	<p>① 成宗實錄 壬申 17年 5月 補充隊에 관한 論議. 「舊大典·只稱大小人員 而不及良人, 故士族無蔭 無職者之賤妾子女 不得屬補充隊」</p>	<p>① 階級問題에 있어 統治行爲가 營爲되는 순간부터 그 社會에는 治者集團을 중심으로 하는 特權階層이 형성된다는 입장에서 統治要員인 士大夫의</p>	<p>① 二分法的 身分制의 모순 지적하기 위한 많은 史料와 諸學說의 인용을 통해 身分의 二分法的 해석 즉 兩班·良人·賤人의 制度를 규명하</p>



	朝鮮時代 身分制에 관한 시각	理論的 根據	研究의 方向	研究의 成果
<p>宋俊浩 教授</p> <p>朝鮮朝 社會 계급에 관한 시 문</p>	<p>와 그들 官職者의 일정범위내의 가족 및 子孫에 대한 지칭인바 그러한 士族들에 의해서 형성된 上流特權階層도 역시 士族이라고 불렀다.</p> <p>③ 貴賤이라고 하였을때의 貴가 良人을 뜻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었으며 따라서 貴賤과 良賤은 반드시 확연하게 구별되어야 한다.</p> <p>④ 士族과 對稱的인 위치에 있는 身分集團을 庶人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는 奴僕을 所有하는 것은 士族의 특권인 동시에 士族이 士族으로서 存立하는데에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 조건이 있다는 것이다.</p> <p>⑤ 四分法의 理論을 뒷받침하는 兩班·中人·常人·賤人의 계층이 존재함을 밝히고 있다.</p>	<p>新典則 良人娶公私 婢所生 許屬 補充隊 比法有益 於國家·況既立, 其法, 又從而 紛更之未可也」</p> <p>② 成宗14年(1483) 12月 丁丑日의李克增의 啓 「大抵士族 所以 異於庶人者 以其有僕隸也 今在朝之臣 多畜僕隸者 無幾一朝逃散反 盡 則士族 不保其門戶 非細故也 臣意別遣敬差官 先刷此輩 論罪徒邊則此風可弭矣」</p> <p>③ 明宗10年(1555) 大典註解 「大小良人 無娶公私 婢 爲妻之理 疑指妾子孫取 重者而言 或因舊大典及 良人之文而不削」</p>	<p>存在를 上流特權階層으로 定立하였다.</p> <p>② 日本의 仁井田教授의 支那 身分法史의 해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身分構造를 四分法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있다.</p> <p>③ 良賤二階論의 根據인 「我國人物 非良則賤 只有二途耳」를 隨母從賤之法과 또는 賤者隨母之法과 補充軍의 身分의 특성과 관련하여 해석하고 있다.</p> <p>④ 成宗實錄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記錄을 통해 士族과 庶人의 한계를 규정하려 하였다.</p>	<p>여 四分法의 身分制說에 理論的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p>
<p>李成茂 教授</p> <p>朝鮮初期 兩班 研究</p>	<p>① 朝鮮前期 身分法은 良賤이 근간이 되었다가 良身</p>	<p>① 成宗實錄 卷189 成宗17年 3月 戊辰條</p>	<p>① 科擧와 官階組織을 통하여 광범한 身分의 범위설</p>	<p>① 良身分이 分化하여 兩班·中人·良人의 身分으</p>

	朝鮮時代 身分制에 관한 시각	理論的 根據	研究의 方向	研究의 成果
李成茂 教授 朝鮮 初期 兩班 研究	<p>分이 分化되어 兩班·中人·良人으로서 나누어지고 兩班이 上級支配身分이 되고 中인이 下級支配身分이 되었으며 良인이 被支配 身分이 되었다고 한다.</p> <p>② 賤에 對稱되는 良身分은 官吏가 될 수 있을뿐 아니라 國家에 租庸調를 부담해야 하는 自由民으로 定義하고 있다.</p> <p>③ 麗末鮮初의 兩班은 文武 官吏와 文武 官吏가 될 수 있는 上級支配身分으로 나누는데 後者에 屬한 부류는 品官 鄉愿土姓을 들고 있다.</p> <p>④ 良人入仕不能說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兩班이라는 특수신분층만의入仕를 주장하였다 (이 견해는 宋教授와 正反對이다).</p>	<p>「我國人物 非良則賤 只有二途耳」</p> <p>② 身分의 分化를 經國大典禮典 諸科條의 分析인 「罪犯 永不叙用者 兒藏 吏之子 再嫁失行婦女之子孫 庶孽子孫 勿許赴文科 生員進士試 科擧와  관련하고</p> <p>③ 成宗實錄 卷140 成宗 13年 4月 辛亥條. 「大舌人·醫人·藥師之類 固之所不可 無者 而所任則各當其分可也 豈必使蕙蕪同處 貴賤相混 然後爲勸勵乎」</p> <p>④ 經國大典 卷1 吏典限路叙用條.</p>	<p>정과 兩班·良人의 身分의 규정을 설정코저 함.</p> <p>② 軍役의 編制와 特殊軍의 形態를 통해 兩班의 實體를 파악하려 함.</p> <p>③ 土地制度的 측면에서 兩班私有地의 發達과 그 經營을 통하여 身分 構造의 形態를 밝히고저 함.</p>	<p>로 분류되었음을 밝히고 麗末鮮初의 兩班은 文武 官吏와 文武 官吏가 될 수 있는 上級支配 身分으로 파악하여 그 부류로서는 品官 鄉愿土姓임을 입증하였다.</p> <p>② 兩班과 良人의 구별기준을 家世와 門地의 차이를 들어 1) 家內에 賤系血統이 섞이지 않아야 하고 2) 科擧合格者가 많아야 하고 3)  훌륭한 兩班家門과 通婚할수록 높아진다고 하여 그 구별기준을 정립하였다.</p> <p>③ 限品官制를 身分制와 연결시켜 兩班과 官系와의 合一性을 정립하고 實職과 散職祿官과 無祿官 正職과 遞兒職등이 정비되는 과정을 통해 兩班·中人的 身分制가 성립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p> <p>④ 兩班과 軍役의 關係에서 兩班이 軍役으로부터 면역되고</p>

	朝鮮時代 身分制에 관한시각	理論的 根據	研究의 方向	研究의 成果
李成茂 教授 朝鮮初期 兩班 研究				있음을 밝히고 土地 所有에서 私田의 변천과정과 관련하 여 兩班身分制의 특 수한 權利를 정립 하고 있다.

지금까지 檢討된 身分構造의 類形은 朝鮮前期 社會構造를 이해하기 위한 일차적 요소로서 朝鮮時代 社會계층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考察이었다.

朝鮮初期의 兩班은 支配權을 소유한 특수 계층이며 이것을 中心으로 身分的 對稱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一般的 理論과 良賤二階級論에 의해 前期社會가 구성되고 있다는 理論으로 對別해 볼 수 있었다.

위에서 檢討된 身分構造는 朝鮮前期 社會를 이해하는데 있어 民의 소재를 어느 계층에 두어야 하는가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것이며 그것이 良賤制일때 民의 위치와 兩班특권 사회일 때 民의 위치를 研究하는데 필요한 요건이기 때문이다.

이미 研究되어진 身分構造의 諸問題들을 바탕으로 社會構造를 分析하기 위해 後期 實學者의 身分觀으로부터 朝鮮前期 科田의 折給과 또한 土地制度의 外的要素였던 屯田의 說定 및 經營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國家→地主→農民 관계에서 身分의 構造的 分析을 통해 社會구조의 고찰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 Ⅲ. 後期知識人の 身分觀에 의한 社會構造分析의 試圖

韓永愚 教授는 後期實學者들의 身分觀 形成은 모두 16世紀 後의 身分이 分化된 상태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sup>18)</sup>

磻溪隨錄에서 兩班이란 大夫 士의 子孫과 族黨으로 東西班의 正職에 오를 수 있는 門閥을 가르키며 그들만이 鄉村을 주도하는 鄉村社會의 支配者라 하였다.<sup>19)</sup>

18) 韓永愚:《前揭書》

19) 柳馨遠:《磻溪隨錄》卷九(教選之制上 鄉約事目)〈景仁文化社刊 1970〉

朴趾源도 兩班은 大夫와 士 그리고 君子등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柳壽垣은 門閥을 통탄 한다고 하여 實學者들의 兩班에 관한 인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될 수 있다.

① 세습문벌을 형성하고 ② 中人 常漢과 교류하지 않으며 ③ 農工商에 종사하지 않고 ④ 軍役의 면제를 받고 ⑤ 鄉約을 비롯한 鄉村共同體에 참여하여 鄉村社會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배타적 身分層으로 특징지우고 있다.

이는 良賤二階級論의 경우 16世記 後半의 身分構造變化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資料로 활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後期實學者들의 身分觀은 朝鮮前期 社會구조를 良賤制的 측면에서 파악하려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들의 生活근거가 朝鮮 後期라는 관점을 배제할 수 없지만 다각적인 측면에서 身分構造를 파악해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李佑成 教授<sup>20)</sup>가 지적하고 있듯이 士는 農工商과 더불어 四民의 하나라고 했지만 士大夫로서의 地位는 農工商과 同列의 것이 아니라 士는 農工商에 대한 支配階級이었다. 적어도 李朝初期에는 이것이 하나의 體制로서 保障되었다라는 서술에서 朝鮮前期 社會構造는 良賤制라는 단순화된 신분해석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淸潭의 四民總論에서 「古無士大夫 皆民也. 民有四 士賢而有德 國君仕之不仕者. 或爲農爲工爲買……」<sup>21)</sup> 라는 말은 前期 社會構造가 四民化하고 있었던 理論을 나타내고 있고 「不仕者 或爲農 ……」은 身分의 分化를 나타내고 있는 말로서 身分制의 유동적 해석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後期知識人의 身分觀은 朝鮮前期 身分制度를 규명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할런지도 모른다.

이러한 諸問題를 해결하기 위해 몇몇으로 選定한 後期知識人의 身分觀을 일별해서 諸學說과 대비하여 前期 社會構造의 형태를 分析해 보고저한다.

後期知識人	磻 溪 柳馨遠 (1622 ~ 73)
身 分 觀	貢舉事目 (隨錄 卷 10 教選之制下) ① 兩班 庶孽 庶族은 그 出身을 區別하여 서로 交流하지 않는것이 國俗인데 이제 한결같이 나이로 차례를 정함은 어찌된 일인가? <sup>22)</sup> 奴隸 (隨錄 卷 26) ② 奴婢는 母의 役을 세습케 하는法 (從母法)을 획일적으로 均用한다. <sup>23)</sup>

20) 李佑成 : <實學研究序說> <一湖閣>1971

21) 李重煥 : <澤里志> 四民總論 (서울古書刊行會 1910)

22) <磻溪隨錄>卷 10 <貢舉事目>

「或曰 國俗兩班庶孽庶族別其品流 不相爲齒而今使一暨序齒何也」

23) <磻溪隨錄>卷 26 <奴隸>

「凡奴婢從母役之法畫一均用」

<p>前期社會 構造의 分析</p>	<p>金錫享 金泳謨 李成茂 宋俊浩 教授에 의해 지적되고 있는 前期社會構造 형태가 兩班中心의 社會구조이며  확연히 區分된 계층社會構造임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반계 유형원의 身分觀은 前期社會와 가장 근접해있던 知識人으로서 前期社會構造가 兩班이라는 특권 계층에 의해 정립된 社會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p>
<p>後期知識人</p>	<p>星 湖 李 瀾 ( 1686 ~ 1763 )</p>
<p>身 分 觀</p>	<p>六 蠹(星湖塞說)                  ① 무릇商賈는 四民의 하나요.....<sup>24)</sup>                  ② 奴婢는 世傳하니 古수를 통해서 世上 어디에도 없는 일이다.<sup>25)</sup>                  ③ 閹閹이란 원래 자기자신이 國家에 功이 있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風俗에는 兩班 子孫을 閹閹이라 混稱하여 庶民과 구별한다.<sup>26)</sup></p>
<p>前期社會 構造의 分析</p>	<p>李成茂教授와 韓永遇教授가 지적하고 있었던 身分構造의 변화와 관계되어 있으며 前期身分制가 16世記後期에 와서 변천해 갔다는 身分制의 변천說을 중심으로 前期에 이루어진 良賤制的 身分制가 分化하여 兩班中心의 社會構造로 정립되어 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星湖의 身分觀은 前期社會구조가 四民으로부터 양반 社會계층으로 分化해 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p>
<p>後期知識人</p>	<p>淸 潭 李重煥 ( 1690 ~ 1752 )</p>
<p>身 分 觀</p>	<p>四民總論(擇里志) 1945                  ① 「옛적에는 士大夫란 것이 없었고 모두 같은 人民이었다. 이 人民中에서 四階層이 생겼는데 士는 어질고 德이 있으면 나라의 王이 벼슬을 시켰고 벼슬을 못한者は 農工商이 되었다.」<sup>27)</sup>                  總論(擇里志)                  ② 「我朝는 처음 名分을 세워 나라를 열었다. 그러므로 今日에 이르러 士大夫의 이름은 매우 융성하였고 또 많아져 벼슬을 주는 데에도 門閥을 보아 취하는 까닭에 人品의 階層은 심히 많아졌다.<sup>28)</sup>                  ③ 「宗室과 士大夫는 朝廷摺紳의 집이 되고 그 아래 身分은 鄉品官으로서 中正·功曹諸位가 된다.                  이 아래는 士庶 및 將校·譯官 算員 醫官 그리고 地方의 閑散人이며</p>

24) 《星湖塞說》 六蠹

「夫商賈者固四民之一」

25) 《星湖塞說》

「奴婢傳世 亘古今通四海無有者也」

26) 《星湖塞說》

「閹閹者身有功伐之謂也 今俗指衣纓家子孫混稱而區別於庶民」

27) 《四民總論》(擇里志)

「古無士大夫 皆民也 民有四 士賢而有德 國君仕之 不仕者 或爲農爲工爲賈」

28) 《總論》(擇里志)

「我朝開運 以名分立國 至今工大夫之名 甚盛以衆 用人取專門閥 故也人品層級甚多」

	또 그 아래는 吏胥·軍戶 良民의 무리이고 끝으로 最下位者는 公私賤奴婢이다. 奴婢로부터 京外 吏胥까지 下人의 一層을 이루고 있고 庶孽 및 雜色人은 中人層이며 品官과 士大夫는 같이 兩班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sup>29)</sup>
前期社會 構造의 分析	四民總論에서 언급된 淸潭의 思想은 朝鮮前期社會구조가 制度的계급 계층으로 分化되어 있지 않고 四民의 존재가 능력에 의해 계층화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良賤制 身分制가 定立되고 있었다는 理論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總論에서 지적되고 있는 朝鮮王朝 成立자체가 名分을 中心으로 하였다는 記錄은 단지 모든 身分구조를 四民一體의 개념으로 시작하여 신분제도 자체가 分化되어 兩班과 良人의 區分이 뚜렷해지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後期知識人	聾菴 柳壽垣 ( 1694 ~ 1755 )
身 分 觀	迂書 ( 總論四民 ) ① 「우리王朝가 高麗의 制度를 답습하여 나라를 세운지 300년에 이르렀으나 四民의 일이 아직도 분수대로 나뉘지 못하고 있으니」 <sup>30)</sup> ② 「……士夫와 勳戚과 商人 譯官들이 대략 여유있다고 일컬어지는데 불과할뿐」 <sup>31)</sup> ③ 「兩班이나 中庶는 물론 약간 氣力 있다는 常人이면 모두가 農事짓는 것을 크게 부끄러워 한다.» <sup>32)</sup> ④ 「이 밖에도 허다한 고질적인 폐단이 모두 兩班을 우대하는 헛된 名分에서 나오고 있으니 그 근본을 따져보면 國初에 法制를 마련할때 四民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데 있는 것이다.» <sup>33)</sup>
前期社會 構造의 分析	15世記말엽에 확립된 兩班위주의 諸般질서가 그 大綱을 유지하려는 허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당시에는 그 社會의 身分질서를 지탱할 能力을 상실하여 국가와 국민은 상호 유리된 가운데 각기의 명분을 찾아 헤매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理象은 農民層의 分化와 商·

29) < 總論 > ( 擇里志 )

「宗室與士大夫 爲朝廷胥紳之家 下士大夫 則爲鄉曲品官中正功曹之類 下此爲 士庶及將校譯官 算員 醫官 方外閑散人又下者 爲吏胥軍戶良民之屬 下此爲公私賤奴婢矣 自奴婢而京外吏胥 爲下人一層也 庶孽及雜色人 爲中人一層也 品官與士大夫同謂之兩班」

30) 迂書 ( 總論四民 )

「我朝沿襲麗制 立國三百年來 四民之業尙未分別」

31) 迂書 ( 總論四民 )

「以國中所謂富家言之 不遇士 夫勳戚及商譯輩 略有饒格之稱」

32) 迂書 ( 總論四民 )

「兩班中庶 至于常人之稍有氣力者 皆以自手農業爲大差耻」

33) 迂書 ( 總論四民 )

「此外許多痼弊 專出於此 而究其根 則國初立法之際 不能分別 四民而然也」

工人的 成長과 같은 社會의 異質的 要素 즉 양반위주의 閉鎖的이고 姑息的인 질서를 배제하려는데 기준을 두고 있는것 같다.  
 이러한 理論은 良賤制의 요소 즉 朝鮮後期로 完結해가는 과정에서 身分構造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朝鮮後期 兩班의 우대를 法制的 잘못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初期부터 身分의 分化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대체로 살펴본 後期知識人의 身分觀은 그들이 生活해온 時代의 상황과 關係해서 서술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身分構造의 良賤制의 해석이나 兩班특권 社會구조를 整理할 수 있는 해석에 偏重할 수가 없다. 그러나 개략적으로 四民이란 用語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통해 볼 때 이는 初期 身分構造를 통한 社會구조가 全體백성을 기본으로 하여 Caste 的인 신분특성이 아닌 支配구조상의 신분을 통해 整理된 社會임을 알 수가 있다.

특히 儲溪는 士는 農工商과 함께 社會의 使命의 한 職業을 수행해야할 專門的인 職業者임을 강조하면서 士가 性理學만 論하여 일의 大體만을 講究하는 태도에 반대하고 있다.<sup>34)</sup>

이는 朝鮮後期的 理想이라기 보다 麗末 以末로 形成된 身分構造의 모순에 대한 반박일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星湖는 閥閥과 士의 두階層에 관한 생활 形편에 대해 언급하면서 「地方尙閥 鄉相之子 必爲鄉相 生於富驕 轉輒增添 不自覺也」<sup>35)</sup>라 하여 閥閥들은 富貴와 驕慢속에서 자라나 奢侈風潮가 날로 더해가는 반면 「士不做官 則京輩近畿 不可以爲生」<sup>36)</sup>라 하여 士는 서울 및 近畿地方에서 生을 營爲할 수 조차 없게 되었다고 개탄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星湖의 身分觀은 朝鮮初期 社會구조를 역시 四民의 개념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士는 李佑成 教授가 지적하고 있듯이<sup>37)</sup>

士大夫階級 { 世襲的 特殊 執權層(閥閥)  
 永久沒落失權層(士)<sup>38)</sup>

라는 관점으로 이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理論은 李重煥의 擇里志 四民 總論에서 士는 종래의 士大夫로서의 支配階級的의 立場에서가 아니라 農工商과 더불어 四民의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職業이 다를 뿐이지 士가 農工商보다 身分이 높을 것이 없으며 農工商이 그보다 身分이 낮을것이 없다는 이론을

34)《儲溪隨錄》卷10 教選之制下(上揭書)

35)《星湖塞說》侈俗 民族文化文庫刊行會, 1910.

36)《上揭書》

37)《實學研究序說》(一湖閣 1980)

38) 李佑成《上揭書》

성립시키고 있다.

즉 「或欲以士大夫 侮農工賈 以農工賈而羨 士大夫別 皆不知其本者也」<sup>39)</sup> 라는 데서 알 수 있다.

이러한 理論은 柳壽垣의 總論四民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즉, 「身分制 秩序의 폐기를 통한 四民의 非階級的인 改編과 이에 기초한 이들의 專門化된 分業의 수행만이 朝鮮朝가 이룩할 수 있는 富國安民의 유일한 길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sup>40)</sup>

이러한 後期知識人들의 思考는 16C 後半 社會構造의 變化와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朝鮮初期의 身分制의 규명을 위해서는 불합리 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後期知識人들의 身分觀은 朝鮮王朝의 成立과 동시에 나타난 身分구조 즉, 四民이라는 성격으로부터 士를 중심으로 分化해간 身分的 변천에 대한 모순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곧 兩班의 特權的 요소가 朝鮮前期부터 서서히 形成되고 있고 그 特權的 구조 아래 四民의 存在가 分化해 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世宗實錄 卷4 世宗元年 6月 丁丑條」의 인용에서 流品官의 범위에 관한 設定과 魚叔權의 稗官雜記에서 세일차대를 증명하며 兩班層 自體內의 自己 도태를 통하여 兩班層의 地位를 정립하려 했다는 李成茂 教授의 지적도<sup>41)</sup> 이러한 前期 社會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렇게 볼 때 朝鮮前期 社會構造는 二分法的 身分制 形成論과 四分法的 身分 形成論을 바탕으로 도출해 내야하는데 문제의 핵심은 양반계층의 형성과 관련하여 支配계층과 피지배계층의 문제를 어떤 측면에서 살펴야 하는가에 있다.

그것은 兩班이란 특수계층의 生成問題와 그 地位에 관한 諸問題에 한정하여 앞에서 살핀 諸教授들의 身分構造에 관한 研究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兩班에 관한 개념 부여는 꼭 「이것」이라고 한마디로 定義하기 어렵다.

이는 官職에 就任하고 있는 士類와 文官 武官에 入仕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門閥로 區分되어 지는데 그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그 時代에 있어서 社會의 支配階級으로서 가질 수 있는 社會的 政治的 기능에 의하여 兩班의 意味와 內容에 규정되어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兩班을 정의한다면 士類나 門閥은 모두 社會體制가 身分制로서 構造化되고 도식화되어 있다는 것이며 또한 支配層은 被支配 階級을 政治 經濟的으로 支配하고 있

39) 李重煥〈擇里志〉四民總論〈朝鮮古典刊行會, 1910.〉

40) 柳壽垣〈迂書〉總論四民〈景仁文化社, 1970.〉

41) 李成茂〈前揭書〉



기때문에 朝鮮前期 社會구조는 양반중심의 계급화된 身分體制로서 說明할 수 있을 것이다.

#### Ⅳ. 土地經營의 側面에서의 農民의 身分의 性格과 社會構造

위에서 살펴본 朝鮮前期의 社會構造는 身分構造의 측면에서 볼때 良人과 賤人으로 區分된 社會구조와 兩班中心으로 구성된 社會구조로 대별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成宗實錄의 「我國人物 非良則賤 只有二途耳」와 迂書의 「自宋以後 只有良人奴隸之別」의 기록을 통해 설명 되어진 朝鮮前期 社會構造가 良人과 賤人으로만 구성된 確立화된 社會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朝鮮前期에 定立되어져 가고 있었던 土地制度중 科田法의 分給과정을 分析하여 볼때 그 반대의 개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高麗·朝鮮의 政治體制는 國王을 정점으로 하여 통일권력을 실현하고 있는 集權的官僚體制였다.

集權的官僚體制는 軍신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었고 이 軍신관계는 社會身分 질서의 上下關係를 이루는 士農工商중 士를 주축으로 하여 형성되고 있었다.<sup>42)</sup>

여기서 士란 治者계급으로서 麗末에 형성된 新興士大夫勢力을 말하며 朝鮮初期 새로운 支配勢力으로 정립되어 갔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太宗朝의 記錄에서 「一世祿王者之所以待士 不可不均也 我國家革前朝私田之弊 設折內科田之法 自公卿大夫至于士 亦受土田此法 文王仕者世祿之美意也」<sup>43)</sup> 라는 이 記事에서 世祿은 「王者之所以待士」라 했듯이 國王의 士大夫에 대한 優대를 말함이다.

따라서 朝鮮初期의 土地制度는 王과 士大夫와의 政治的 關係를 중심으로 차등있게 지급되는 科受私田으로서의 制度이며 王의 養待士의 意味로 臣僚에게 折給하여 주었던 制度였다.

이렇게 볼때 前期土地制度의 형성과 관련하여 나타난 社會구조속의 身分의 의미는 士農工商을 良人으로 묶어 개념화 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그것은 위 記事중 「自公卿大夫 至于士 並受土田」이라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士大夫家는 科田을 世祿으로 受得함으로서 그 資生을 國家權力에 의해 制度的으로 보장받고 있기 때문이다.

42) 李景植 <朝鮮前期 土地制度 研究> <一湖閣> 1986

43) <太宗實錄> 卷 26 太宗 13年 11月 庚寅條

이는 士大夫의 存在자체가 士農一致의 意味로 정립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으로서 世宗朝의 記錄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本國士大夫 既有藏獲又受土田 家産不爲不周 雖處散地 是以仰事俯育 況居官者 既受其祿」<sup>44)</sup>

즉 士大夫는 奴婢를 소유하고 있고 비록 散地에 處하여도 「仰事俯育」할 수 있다는 것은 士는 平民과 公私賤과 區分되어 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이는 朝鮮前期 社會구조를 分析함에 있어 良賤制 理論이 지적하고 있는 「朝鮮前期에는 兩班·中人·常漢(良人)이 서로 對稱관계로 인식되는 資料는 찾아볼 수 없으며 이는 곧 당시의 社會階級이 아직도 兩班·中人·良人등으로 分化되지 않았음을 말하여 준다」<sup>45)</sup>는 견해는 兩班層과 士族層을 별도의 의미로 분류하고 있음을 말하며 官職과 階級을 연관하고 있다고 보아야겠다.

朝鮮前期 社會는 위에서 제시된 토지제도의 경영과 관련하여 생각할때 士族을 支配層으로 하여 身分의 上下질서를 바탕으로 한 통치체제를 유지해 갔다는 점에서 볼때 社會구조의 형성과 관련한 신분구조적 분석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때 兩班은 良人과 대칭관계를 이루지 않으며 오히려 良人과 賤人이 그 대칭관계에 놓여 있다고 보아야겠다.

農民의 계층성은 良人과 賤人으로 분류하며 이는 良人農과 賤人農으로 區分되어지고 있다.<sup>46)</sup>

이렇게 볼때 農民의 身分이 賤人과 같이 權力구조속에서 별다른 특혜나 실질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되어진다. 물론 法制的인 측면과 실제적 측면에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朝鮮前期 社會구조를 양반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지고 있다.

즉, ① 「兩班은 中人이나 常漢보다 上位에 위치하는 特權의 身分層의 意味를 갖지 않는다」

② 「兩班은 有職者의 대명사로 쓰였기때문에 兩班의 對立개념은 無職者이며 無職者

44) 《世宗實錄》卷 50 世宗 12年 12月 丙戌條

45) 韓永遇《前揭書》

46) 金錫亨《朝鮮封建時代 農民의階級構成》《學習院 東洋文化研究所》1960

는 一般的으로 庶人 또는 百姓으로 불리웠다.…… 兩班이 官職을 박탈당하면 庶人이 되게 마련이다.]

위 ①②의 내용<sup>47)</sup>이 곧 그것이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朝鮮前期 社會구조는 양반이라는 특권층에 의해 구성된 사회구조라는 측면에서 이해 되어지고 있기때문에 前期社會구조를 분석함에 있어 새로운 측면에서의 고찰이라할 수 있겠다.

이러한 관점을 科田收授와 관련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립될 수 있다.

世宗朝 兵曹參判 趙從生의 啓에서

「……有京畿陽城住檢參議年八十二歲者 亦與焉恐失老者安之之義 願勿令點考。 上嘉納日有科田 欲以忠信待士也……」<sup>48)</sup>

科田은 君臣간의 名分關係를 유지하는 物的기능을 가지며 忠은 上下秩序를 유지하는 官職으로 정립되고 있다.

따라서 科田은 受得者를 넘어 世祿의 家로서의 世家 世族의 存養이 목표였다.<sup>49)</sup>

즉, 科田은 臣僚본인에 한정되어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그 構成家族員 그리고 家系에까지 연결되고 있었다.

이는 兩班이 中人이나 常漢보다 上位에 위치하는 特權的 身分層을 의미하는 것이며 無職者일때 庶人으로 전락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

太宗實錄에서

「爲存養世家事 臣等竊聞 文王之治岐也」<sup>50)</sup>

「存養世家」의 意味는 朝鮮初期 官僚體系가 君臣關係를 바탕으로 하여 성립되고 있음을 말하며 身分의 上下關係를 설명해주고 있다.

특히 兩班이 官職을 박탈당하면 庶人이라는 말은 士를 良人の 범주안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실제 科田法의 形成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仕者世祿」의 뜻을 지켜가자는 말로서 官人層의 官職자체는 세습적으로 지켜가게 할 수 없어도 官人의 身分자체는

는 一般的으로 庶人 또는 百姓으로 불리웠다.……兩班이 官職을 박탈당하면 庶人 이 되게 마련이다.」

위 ①②의 내용<sup>47)</sup>이 곧 그것이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朝鮮前期 社會구조는 양반이라는 특권층에 의해 구성된 사회구조라는 측면에서 이해 되어지고 있기때문에 前期社會구조를 분석함에 있어 새로운 측면에서의 고찰이라할 수 있겠다.

이러한 관점을 科田收授와 관련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립될 수 있다.

世宗朝 兵曹參判 趙從生의 啓에서

「……有京畿陽城住檢參議年八十二歲者 亦與焉恐失老者安之之義 願勿令點考. 上 嘉納日 有科田 欲以忠信待士也……」<sup>48)</sup>

科田은 君臣간의 名分關係를 유지하는 物的기능을 가지며 忠은 上下秩序를 유지하는 가치관으로 정립되고 있다.

따라서 科田은 受得者를 넘어 世祿의 家로서의 世家 世族의 存養이 목표였다.<sup>49)</sup>

즉, 科田은 臣僚본인에 한정되어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그 構成家族員 그리고 家系에까지 연결되고 있었다.

이는 兩班이 中人이나 常漢보다 上位에 위치하는 特權的 身分層을 의미하는 것이며 無職者일때 庶人으로 전락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

太宗實錄에서

「爲存養世家事 臣等竊聞 文王之治岐也」<sup>50)</sup>

「存養世家」의 意味는 朝鮮初期 官僚體系가 君臣關係를 바탕으로 하여 성립되고 있음을 말하며 身分의 上下關係를 설명해주고 있다.

특히 兩班이 官職을 박탈당하면 庶人이라는 말은 士를 良人の 범주안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실제 科田法의 形成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仕者世祿」의 뜻을 지켜가자는 말로서 官人層의 官職자체는 세습적으로 지켜가게 할 수 없어도 官人의 身分자체는 지켜갈 수 있도록 설정되고 있었다.

이는 守信田과 恤養田에 관한 규정으로도 그 설명이 가능해진다.

「守信恤養之田 非特國家世祿養士之原意 於化民成俗之道 亦不爲小補」<sup>51)</sup>

47) 韓永愚《前揭書》

48) 《太宗實錄》卷 45 世宗 11 年 9 月 章 條

49) 李景植《前揭書》

50) 《太宗實錄》卷 25 太宗 13 年 4 月 壬申條

51) 《成宗實錄》卷 32 成宗 4 年 7 月 乙未條

가령 父의 科田을 全科傳受한 官人의 子가 二十才가 되어도 未仕인 채로 있어서 자기 科에 따른 科田을 折受 받을 수 없는 경우 그것은 국가에 반납되어야 하는데 반납되는 경우보다 회수하기 어려운 世傳的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실들은 世宗朝의 기록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漸又啓曰一旦科田 既是永永賜與」<sup>52)</sup> 에서 科田은 永永賜與된 土地라고 인식되었다.

따라서 官人의 身分을 유지하는 것은 所有權에 입각한 土地支配관계에서 그 형태가 정립되며 이는 곧 兩班을 官職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없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것이다.

또한 兩班의 범주에서 受田하고 있었던 閑良官은 士大夫中 無職事官이나 士大夫의 子弟였다. 이들은 作牌되어 三軍에 分屬되고 王室待衛에 종사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受田할때는 受田散官 受田品官으로 불리웠다.<sup>53)</sup>

閑良子弟들은 그들 자신이 散官은 아니지만 士大夫의 子弟라는 사실만으로 科田 軍田을 受得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兩班이 官職과의 관련보다 身分과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준다.

즉 受田閑良官의 宿衛는 일반농민이 담당하던 軍役과는 질이 달랐다.<sup>54)</sup>

이와 같이 朝鮮前期의 身分構造는 兩班의 對立개념으로서 無職者 즉, 無職者는 一般의으로 庶人 또는 百姓으로 볼 수 없는 이유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世祖朝의 기록을 통해서 더욱 명백히 밝혀낼 수 있다.

世祖朝 大司憲梁誠之의 상소에서

「科田所以養士大夫者也 臣聞將置職田 然朝士既食其祿 士農各異 若不食祿食租則與齊民無異矣 與齊民無異則國無世臣矣 此不可不慮者也 又食職田 而致仕之臣 與夫公卿大夫之子孫 將不食一結田 似乖所請世祿之意也」<sup>55)</sup>

이러하여 世祖末 科田이 폐지되고 職田이 新設되었을때 士大夫들이 이제는 士와 農이 갈아져 국가에는 世臣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렇게 볼때 士·農 즉, 兩班과 農民(庶人)을 良人으로 묶어서 생각할 수 없을것 같다. 즉, 科田을 중심으로 형성된 身分構造는 士族이라는 支配身分이 折給받은 土地와 이 土地의 耕作農民을 支配하는 원리가 成立되고 있는한 확실한 身分的 한계가 定立되

52) 《世宗實錄》卷 5 世宗 元年 9月 章酉條

53) 李載堦《朝鮮初期社會構造研究》〈一湖閣 1984〉

54) 李成茂《前揭書》

55) 《世祖實錄》卷 40 世祖 12年 11月 庚午條

어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어느 한 社會의 階級을 良賤의 둘로 나누는 理論은 그 社會의 모든 사람을 賤人이 아니면 非賤人이라는 의미에 불과하며, 이러한 상황으로 판단한다면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도 같은 상황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朝鮮前期 社會構造는 良人和 賤人만으로 對別되어 있는 社會가 아니라 일정한 계층적 身分의 定立下에 이루어진 社會구조로 이해되어 질 수 있겠다.

그러나 이에 反하는 前期社會구조의 신분觀을 「朝鮮初期의 良人은 奴婢와 뚜렷이 대칭되었고 良人和 奴婢와의 구별은 天과地 또는 君과臣의 관계로 인식되었다」<sup>56)</sup> 라고 하여 良人을 피지배 층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社會구조를 파악하려 하였다.

이는 朝鮮前期의 良人 그 중에서 農業을 生業으로 하는 一般良人은 學生을 배출하고 學生을 통해서 官僚를 배출하고 軍役을 통해서 국방과 치안을 담당하는 기본적인 母集團의 과도적 集團이라 하여 良人農民의 身分의 觀點을 土農一致的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었다.<sup>57)</sup>

우선 良人の 개념에 대해서 개괄해 보기로 한다.

良人은 官職을 가지고 있지 않은 兩班과 원칙적으로 과거 응시 자격에 있어서 하등의 다를바가 없다.

그러나 李成茂 教授는 現實의 측면에서 良人の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sup>58)</sup>

① 장기간에 걸친 과거준비를 위한 경제력 ② 양반자세와 다른 교육환경 ③ 일반 良人子弟는 과거응시 절차가 兩班자제보다 까다롭다는점을 들어 兩班과 良人이 法制的 측면에서 차이점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현격한 격차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과거합격자로서 良人급제자는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그런데도 良人으로서 科擧에 급제한 몇몇의 사례를 통하여 兩班과 良人の 身分의 차이를 없애고 동일선상에서 본다는 것은 時代的 상황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理論은 良人農民의 사회적 위치를 양반과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다는 전기 社會구조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조선전기 社會가 양반중심의 권력구조였고 양인의 사회적 위치가 피지배층이었다는 사례는 충분히 찾을 수 있다.

56) 韓永愚 <前揭書>

57) 李成茂 <朝鮮初期兩班研究> <一湖閣> 1971

58) 57 과 同.

- A) 「又言今革陰竹國農所其稱干農夫等 竝皆分屬船軍及漢都鍊互軍 豪強之輩爭占其田 竝取干等所耕之田 其家舍 亦皆奪占干等失業 冤抑莫伸 願遣行臺監察…… 竝令還給據占公田 與民爭利者…… 一推鞠 申聞論非從之」<sup>59)</sup>
- B) 「遣行臺監察 禁平州江陰爭占田者 上聞豪勢之家爭占 革罷軍器監所 一耕平州江陰兩邑之田 今議政府遣監察 禁止 均給無田之民」<sup>60)</sup>
- C) 「議政府啓 申明豪家多占陳地之禁 從之」<sup>61)</sup>
- D) 「議政府啓曰…… 今守令等不畏條令 任情濫占 過數耕種 弊及於民 請令觀使定剛明卷使員 窮推數外屯田 以給無田之民…… 從之」<sup>62)</sup>

위기사들은 15C에 국한하여 나타나는 屯田과 農民과의 관계에서 農民이 被支配된 단임을 입증해 주고 있는 자료이다.

그것은 豪強인의 土地廣占과 無田農民이나 貧農에게 관한 국가의 관심과의 관련에서 보여지는 支配와 被支配의 관계를 말함이다.

A)에서 陰竹懸 國屯田의 干農夫들은 모두 船軍이나 漢都鍊互軍에 分屬되어 있는데 豪強의 무리들이 서로 다투어 國屯田의 田地를 빼앗고 아울러 干農夫의 所耕田과 家舍마저도 빼앗아 干農夫들이 失業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豪強之輩爭占其田」과 「干農等失業」의 현상이다. 國屯田의 設置目的과 그 경영의 궤를 벗어난 상태에서 豪強之輩의 土地점탈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支配權의 作用에 의해 農民이 받고 있는 피해는 農民 그 자체가 피지배 집단이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B)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平州 江陰의 屯田이 豪勢한 者에게 탈점되어 갔음을 나타내고 있고, C)에서도 世宗二年에 豪強인이 국가로부터 許可文券을 받았을지라도 실제 개간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그 소유를 인정치않고 民戶에 起耕을 허용하였는데 그 동안 豪家が 陳地를 많이 점유하여 그것을 금지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D)의 자료도 官屯田의 數外屯田을 無田之民에게 分給하라는 내용이다.

59) 《太宗實錄》卷9 太宗5年 3月 祭亥條

60) " 4月 己卯條

61) 《世宗實錄》卷92 世宗23年 3月 丁酉條

62) 《端宗實錄》卷9 端宗元年 11月 丙辰條

이상의 자료에서 農民은 豪家에 침해 받으면서 그들의 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침해받는다든 개념은 피지배집단의 양상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農民 그 자체는 法制的 身分構造속에서 奴婢와 그 성격을 달리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農民은 賤人과 마찬가지로 兩班계층으로부터 支配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同一하다고 보아야겠다.

물론 朝鮮初期 良人 확대 정책에 따른 農民의 土地 均占문제와 관련하여 良人農民의 양상을 생각할 수도 있다.

그것은 世宗朝의 記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平山都護府使鄭次恭上書曰…… 臣竊以爲我國壤地編小 無田之民 幾乎十分之三……」<sup>63)</sup>

無田農民의 數를 3/10 으로 나타낸다면 有田農民은 7/10 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初期 所耕田은 以上の 資料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대다수가 침탈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침탈자는 모두 豪強들 즉 王族, 官人, 地方勢力者를 말하며 이들은 곧 支配層이고 피탈점자는 農民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아래서 7/10의 自營農의 基本的 存在인 良人自作農의 경우라도 그들이 모두 일정한 영농규모를 가진 존재가 아니며 社會的 存在자체가 천차만별의 다양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良人農民은 하층민의 신분적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支配와 被支配의 관계에서 考察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世宗朝의 記錄을 통해 보면 더욱 확실해진다.

世宗朝의 記錄에서

「今之稱良者 等級非一有 雖非衣冠閥閱之裔 而有上下內外之別者有 雖無上下內外之別而也 爲平民者有 身非賤而賤不異者」<sup>64)</sup>

지금의 良民이라 칭하는 자들은 그 등급이 한결 같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衣冠閥閱의 후예는 아니지만 上下 內外의 別을 가진자가 있으며 비록 上下 內外의 別을 갖지는 않았지만 平民인자가 있고 비록 신분이 천민이 아니더라도 천민과 다름없는자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土地所有를 기초로한 身分의 分化이며 존립의 형태일 것이다. 따라서 「혈통의 귀천에 의해서 전체 국민이 良人과 노비로 크게 양분된<sup>65)</sup> 사회라고 보기에는 오히려 身分구

63) 《世宗實錄》卷 11 世宗 4年 正月 丙子條

64) 《世宗實錄》卷 64 世宗 6年 4月 壬戌條

65) 韓永愚《前揭書》



조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分化된 사회라고 보아야겠다.

이와 같은 사회구조 아래서 즉 7/10의 自營農이라 할지라도 그 영세한 규모나 또는 權力에 의해 축소해간 土地를 통해 확대 재생산의 근거를 축적하기 어려웠고 公私의 부담과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李成茂 교수의 지적대로 몇몇의 良인이 과거에 급제 했다고 해서 兩班과 良人을 同一한 身分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좀더 생각해보아야할 문제인것 같다.

물론 朝鮮王朝의 成立은 農民層의 지지를 기반으로 했기때문에 良人農民에 대한 身分的 상승을 위한 制度的 장치가 주어져 있음은 부인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어떤 국가이던 권력구조를 중심으로한 국가형태를 정립하고 있으며 이는 또한 支配와 被支配의 관계로서 구성 되어져야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良人の 범주안에 農民과 兩班을 함께 묶어 「農民은 校生과 軍人을 배출하고 文武官僚를 배출하는 母集團이기 때문에 農民이라 못박아 부를 필요가 없고 순수한 農民은 차라리 奴婢라고<sup>66)</sup>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다시 말하면 農民으로서 과거나 官界, 軍人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農民 전체가 奴婢가 된다는 말은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前期社會구조의 분석을 위해 農民을 상위계층에 두느냐 하위계층에 두느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다음 사료를 통해서 15世紀의 農民의 실태를 확인해보자.

- A) 「惟我國家…… 耕十結以上者 皆豪富之民 有田三四結者 盖亦少矣」<sup>67)</sup>
- B) 「小民之田 不過一二結者多矣」<sup>68)</sup>

A)의 사료에서 10結 以上을 가진자는 모두 부자라는 사실과 B)의 사료에서 소농민의 토지규모가 1.2結의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

小農民의 土地가 1.2結일때 결국 그들의 所耕內部에서 확대 재생산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같은 世宗朝의 記錄에서

「民之生業 雖值豐年 盡償前歲之稱貸 僅免其年之饑饉」<sup>69)</sup>

66) 韓永愚 <前揭書>

67) 《世宗實錄》卷 83 世宗 20年 11月 庚子條

68) 同上書 卷 94 世宗 23年 12月 乙酉條

69) 《世宗實錄》卷 86 世宗 21年 7月 丁卯條

이러하여 農民이 풍년을 만나도 往年의 빚을 갚고나면 겨우 그해의 기근을 면할정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支配기구에 강력히 예속되었고 그 예속에 따라 재생산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때 農民은 法制的으로 軍役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科擧나 教育에 관한 法的제한에서 벗어나 있다는 理由 하나만으로 土農一致의 개념으로 파악할 수 없을것 같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良人和 奴婢를 동등한 피지배층으로 간주하려면 양인의 지위가 法制的으로 실제적으로 奴婢와 대등하다는 것이 충분히 논증되어야할 것이다.<sup>70)</sup>

그러나 一般的으로 法制的 측면을 떠나서 설명되어질때, 즉 실질적 측면에서 良人の 개념을 이해할 때에는 兩班과 區分되어 설명되어져야할 것이다.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良人이 法制的 보장속에 놓여있다고 해서 피지배층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상황을 통해서 볼때 피지배층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물론 奴婢는 국가기관이나 他人에게 소속되어있는 不自由民이기 때문에 良人和 天과地 君과臣이라는 표현이 가능할지 모른다. 그것은 朝鮮時代에 있어서 上下身分內에 수직이동이 어렵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그들身分 사이에 카스트(Caste) 적인 신분장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sup>71)</sup> 그것은 예외적 경우이긴 하지만 賤人이 從良되어 兩班이 되는 수도 있었기때문이다.<sup>72)</sup>

또한 世宗때 賤人들의 官階인 雜職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은 身分構造를 단정적으로 良賤制로 區分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土地制度的 측면에서의 前期社會構造 分析은 支配와 被支配의 확연한 區分이 設定되어질 수 있고 兩班과 良人の 階層的 性格이 분명하였으며 賤人도 被支配層의 부자유민으로서 정립되어져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따라서 宋俊浩 教授가 지적한<sup>73)</sup> 兩班과 非兩班과의 限界기준은 어느地或 어느 상황에서나 적용이 될 수 있는 객관적 이론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따라 변경 설정되는 주관적 이고도 상대적인 기준일 것이다.

70) 韓永愚《前揭書》

71) 李成茂《前揭書》

72) 金錫亨《前揭書》

73) 宋俊浩《韓國에 있어서 家系記錄의 歷史와 그 解釋》〈歷史學報 1980〉

## V. 結 言

朝鮮前期의 사회구조를 이해함에 있어 身分構造의 分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그것은 지배구조와 피지배구조의 성격이 分析되어 짐에 따라 그 時代의 성격이 규명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成立과 아울러 支配階層과 被支配階層의 存立은 당연한 것이었다. 단지 어떤 일정한 사회현상이나 資料에 의해 그 時代의 한 부분을 획일화된 身分구조로 이해한다면 분명히 새로운 문제성을 提示해 준 것임에 틀림없다. 신분제의 단일성을 지적하고 있는 成宗實錄의 「我國人物 非良則賤 只有二途耳」란 記事는 朝鮮前期社會를 구성하고 있는 身分의 성격을 단편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특히 柳壽垣이 언급한 「自宋以後 只有良人奴隸之別 更無所涇門閥之爭」이란 기사를 통하여 15世紀의 身分과 16世紀後의 身分制를 도식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良人和 奴婢의 區別이 귀속적(ascriptive)인 것이라면 良人자체內의 身分구별은 成就的(achievable)인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社會구조의 法制的 측면에서 고찰되어진 것으로 農民의 실제생활과 사회계층을 파악할때 成就의 요소도 주어져 있지만 귀속적 요소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良人身分의 分化를 成就的인 것으로 주장한다면 이미 朝鮮前期 上流特權層의 존재는 설명되어지기 곤란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먼저 諸學說을 검토하였다.

宋教授는 成宗實錄과 身分의 對稱문제를 分析하면서 제시한 反論은 필요한 작업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李成茂 教授가 지적한 兩班과 良人の 區別기준은 家世와 門地의 차이에 두었다는 것과 限品官制의 규명에서 兩班中心의 사회구조임을 밝혀낸 것은 朝鮮前期 社會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었다.

따라서 본고는 몇몇 선별된 後期實學者들의 身分觀을 개괄하여 살펴보았다.

그 이유는 良人和 賤人으로 區分된 前期社會는 四分法的 身分構造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것 같다는 身分구조의 새로운 견해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柳馨遠 李翼 李重煥 柳壽垣의 身分觀은 그들이 살아온 時代를 배경으로 하여 身分構造에 대한 회의 또는 불합리성과 모순을 피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찰하여야 했다.

위 學者들이 주장한 四民論 즉 「土는 農工商과 더불어 四民의 하나」라고 했지만 士大

夫의 地位가 農工商과 同列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李佑成 教授의 지적에 의하면 「士는 農工商에 대한 支配階級이며 적어도 李朝初期에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의 體制로서 보장되었다」라는 말은 後期知識人들의 身分觀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음이다. 즉 柳壽垣의 「自宋以來 只有良人奴隸之別」이라는 언급은 그들 자신이 士로서 官界에 진출하지 못했던지 또는 불이익한 상태였으므로 士가 農工商보다 身分이 높은것이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었다. 이러한 見解는 조선전기 社會구조를 身分構造와 연결하여 다각적인 分析의 필요성을 갖게 한것이다.

따라서 土地所有관계에 따른 身分構造의 실질적 형태가 무엇인가에 대해 考察해 보았다.

우선 ① 15世紀에 나타난 資料는 모두가 士族(兩班)을 우대하는 입장에서 「王者之所以待士」 「仰事俯有」이라 하여 士는 平民과 公私賤과 區分되고 있음을 정리하였다. 이것은 兩班 中人 常漢이 대칭되는 자료였다.

② 「兩班은 官職을 가졌을때만 兩班이며 官職을 박탈당했을 때는 庶人和 같다。」라는 理論은 「……爲存養世家事」라 하여 科田의 受得者를 넘어서 世祿의 家로서의 世家 世族의 存養임을 나타내고 있음에 따라 그 모순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官職자체는 세습적으로 지켜가게할 수 없어도 官人의 신분자체는 지켜갈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③ 兩班과 農民은 支配와 被支配관계에 있다는 사실도 정립할 수 있었다.

즉, 農民은 一結의 土地를 가지고 국가에 예속되어 환곡이라도 얻어야 한해의 기근이라도 면할 수 있었으며 또 그 예속에 따라 재생산 활동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農民이 法制的으로 어떤 보장을 받고 있다해도 經濟的 측면에서 支配계층에 예속되어야 했으며 그것은 곧 農民이 피지배층임을 증명하고 있다.

④ 결론적으로 朝鮮初期에 있어서의 身分구조는 上下 身分間에 수직이동도 불가능했으며 그들 사이에 caste 적인 신분장벽은 아니라도 실제적인 계층이 존재한 社會구조였다.

夫의 地位가 農工商과 同列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李佑成 教授의 지적에 의하면 「士는 農工商에 대한 支配階級이며 적어도 李朝初期에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의 體制로서 보장되었다」라는 말은 後期知識人들의 身分觀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음이다. 즉 柳壽垣의 「自宋以來 只有良人奴隸之別」이라는 언급은 그들 자신이 士로서 官界에 진출하지 못했던지 또는 불이익한 상태였으므로 士가 農工商보다 身分이 높은것이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었다. 이러한 見解는 조선전기 社會구조를 身分構造와 연결하여 다각적인 分析의 필요성을 갖게 한것이다.

따라서 土地所有관계에 따른 身分構造의 실질적 형태가 무엇인가에 대해 考察해 보았다.

우선 ① 15世記에 나타난 資料는 모두가 士族(兩班)을 우대하는 입장에서 「王者之所以待士」 「仰事俯有」이라 하여 士는 平民과 公私賤과 區分되고 있음을 정리하였다. 이것은 兩班 中人 常漢이 대칭되는 자료였다.

② 「兩班은 官職을 가졌을때만 兩班이며 官職을 박탈당했을 때는 庶人和 같다。」라는 理論은 「……爲存養世家事」라 하여 科田의 受得者를 넘어서 世祿의 家로서의 世家 世族의 存養임을 나타내고 있음에 따라 그 모순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官職자체는 세습적으로 지켜가게할 수 없어도 官人의 신분자체는 지켜갈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③ 兩班과 農民은 支配와 被支配관계에 있다는 사실도 정립할 수 있었다.

즉, 農民은 一二結의 土地를 가지고 국가에 예속되어 환곡이라도 얻어야 한해의 기근이라도 면할 수 있었으며 또 그 예속에 따라 재생산 활동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農民이 法制的으로 어떤 보장을 받고 있다해도 經濟的 측면에서 支配계층에 예속되어야 했으며 그것은 곧 農民이 피지배층임을 증명하고 있다.

④ 결론적으로 朝鮮初期에 있어서의 身分구조는 上下 身分間에 수직이동도 불가능했으며 그들 사이에 caste 적인 신분장벽은 아니라도 실제적인 계층이 존재한 社會구조였다. 그러나 制度的 측면을 벗어난 現實의 상황에서 볼때 前期社會의 신분구조는 특징적이고 획일화된 것이 아니라 兩班의 특권이 형성되면서 자연적으로 良人이 계급적 구조속에서 피지배층으로 정립되어 갔고 賤人이 그 하층구조로서 存立된 社會가 형성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 參 考 文 獻

1. 朝鮮王朝實錄, 國史編纂委員會 1971.
2. 朝鮮王朝法典集, 景仁文化社 1959.
3. 增補文獻備考, 東國文化社 1971.
4. 柳馨遠, 礪溪隨錄, 景仁文化社 1974.
5. 李重煥, 擇里志, 朝鮮古書刊行會 1910.
6. 丁若鏞, 與猶堂全書, 景仁文化社 1970.
7. 李 翼, 星湖僊說, 民族文化文庫刊行會 1986.
8. 柳壽垣, 迂書, 景仁文化社 1970.
9. 韓永遇, 朝鮮前期 社會經濟 研究, (乙酉文化社 1983)
10. 李成茂, 朝鮮初期 兩班 研究(一湖閣 1981)
11. 金錫亨, 朝鮮封建時代 農民의階級 構成(學習院東洋文化 研究所 1960)
12. 李載燾, 朝鮮初期 社會構造 研究(一湖閣 1983)
13. 李景植, 朝鮮前期 土地制度 研究(一湖閣 1986)
14. 金泰永, 朝鮮前期 土地制度史 研究(知識產業社 1983)
15. 歷史學會編, 實學研究入問(一湖閣 1980)
16. 李樹健, 韓國中世社會史 研究(一湖閣 1985)
17. 金泳謨, 朝鮮支配層 研究(一湖閣 1986)
18. 金玉根, 韓國土地制度史 研究(大旺社 1980)
19. 韓永愚, 麗末鮮初의 閑良과 그 地位(韓國史 研究 1969.3)
20. " , 朝鮮初期의 上級胥吏成衆官(東亞文化 10輯 1971.9)
21. " , 柳壽垣의 身分改革思想(東亞文化 14輯 1972)
22. " , 朝鮮前期 性理派의 社會 經濟思想(韓國思想史大系II 1976)
23. 李成茂, 朝鮮初期의 鄉吏(韓國史研究5 1970.3)
24. " , 15C 兩班論(창작과 비평 28.1973. 여름호)
25. " , 朝鮮前期 身分制度(東亞文化 13輯 1976.7)
26. " , 兩班官僚 政治의 構造的 矛盾(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2.1977)
27. 宋俊浩, 朝鮮時代 科擧와 兩班 및 良人(歷史學報 69.1974)
28. " 朝鮮兩班考(韓國史學 4 精神文化研究院 1983)
29. " 韓國에 있어서 家系記錄의 歷史와 그 解釋(歷史學報 1979)
30. 金錫亨, 李朝初期國役編成의 基底(진단학보 14.1941.6)
31. 李相佰, 庶孽差待의 연원에 對한 研究(진단학보 11.1934)

32. 甲解淳, 中間階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0.1974.12)
33. 劉承源, 朝鮮初期의 身良役賤階層 (韓國史論 1.1973.5)
34. 李佑成, 閑人百丁의 新解釋 (歷史學報 19.1962.12)
35. 崔承熙, 弘文館의 成立經緯 (韓國史 研究 5.1970.3)
36. 韓祐勛, 韓國社會階層의 近代化過程 (思想界 1960.10月號)
37. 李景植, 朝鮮初期 屯田의 設置와 經營 (韓國史 研究 1978.9)
38. 金泳謨, 李氏王朝時代의 支配層 (Elite)의 形成과 移動에 관한 研究 (중앙대論文集 11집 12집 1966·1967)



